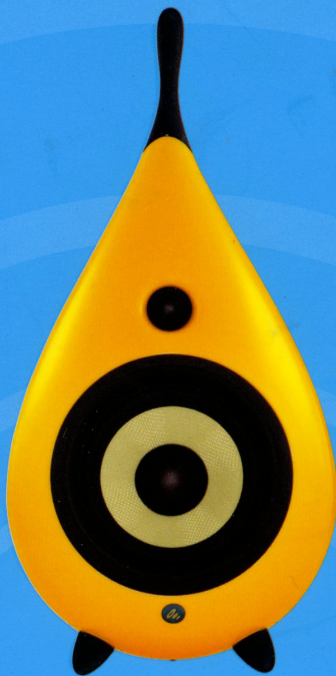


between Art &
Business

VOL. 347 MAY 2007 www.design.co.kr

DESIGN

05



특집 도쿄 디자인 특구, 도쿄 미드타운

TOKYO DESIGN DISTRICT

커버스토리 |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스토리

광고 속 게이 코드, 신문이여 진화하라, 문화자원이 되는 벽화,
2007 서울리빙디자인페어 리뷰



1 '애프터 이미지 07-244' '너도밤나무와 월넛, 검정 화강암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무게가 많이 나가 해의 전시에 애를 먹었다. 최병훈 교수는 이를 계기로 실제적인 운송과 전시가 용이한 경량화 제작 기법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전시부스 전경 3 '삶의 질적 가치 향상'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최승천 교수의 작품. 4 '애프터 이미지, 태초의 잔상 05-222', 단풍나무에 옷칠을 하고 화강암으로 마무리했다. 초심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감성을 담은 목재가구의 탄생 아메리칸 하드우드 포럼 American Hardwood Forum



미국활엽수수출입협회는 미국산 목재에 관한 홍보와 기술 지원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단체로 2003년부터 꾸준히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해 미국산 활엽수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활엽수는 참나무, 벚나무 등 목재마다 각기 다른데 나뭇결이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디자이너들은 활엽수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올해는 국내 아트 퍼니처의 선구자인 최승천 홍익대학교 명예교수와, 그의 제자로 세계무대에까지 한국 아트 퍼니처의 위력을 펼쳐 보이고 있는 최병훈 홍익대학교 교수가 작품을 선보였다. 그들의 작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윤영권이 디자인한 섬세하고 단아한 유선형이 드리워진 공간에 놓였다. 순백의 아름다운 위에 초록의 자연, 그리고 목재의 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었다. 최승천 교수의 '나무'는 조각 기법을 이용해 새와 꽃을 단순화한 작품으로 인

생의 소망을 담은 그릇이라는 의미를 전한다.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기대어 줄 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처럼 말이다. 지금까지 목재를 투박하게 가공했던 그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였으며 차분하고 온화하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파리의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어 화제를 모았고, 이번엔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에까지 작품이 소장되는 영광을 맛보고 있는 최병훈 교수는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게 다가오는 천연 소재 나무를 이용해 개성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동시에 삶의 질적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가구를 선보였다. 획일화된 대량생산 가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뿐인 가구의 '기운'이 느껴진다.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에 소장된 최병훈 교수의 작품

독일에 있는 세계적인 디자인 미술관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에 지난 3월 최병훈 교수의 두 작품이 소장되었다.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이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을 소장한 것은 최초이다.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의 알렉산더 폰 페게작 관장은 그의 의자에 투영된 한국적 자연미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병훈 교수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며 닦아온 한국적 가치가 세계적인 가구 컬렉터의 눈에 비쳐진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소장이 결정된 2점은 2005년도 작품인 '애프터 이미지(After Image) 태초의 잔상 05-222'와 2007년도 작품인 '애프터 이미지 07-244'이다.

